

# '남해형 관광 프로젝트'개발로 인구감소 위기 넘는다

✎ 정기환 기자 | ⓒ 승인 2023.01.30 16:42

관광벤처 8개사, 남해군 자연·문화 활용한 특화 관광 상품 개발·추진



▲ '남해형 관광 프로젝트'개발로 인구감소 위기 넘는다

[디스커버리뉴스=정기환 기자] 국내 유수의 벤처 관광업체 8곳이 남해군의 자연·문화를 활용한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.

남해군은 지난 26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'better ㄹ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실증 사업' 추진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다고 밝혔다.

'better ㄹ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실증사업'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

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자체-소상공인-관광벤처 간 상생모델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.

한국관광공사는 예선과 결선을 거쳐 이 사업에 참여할 11개의 관광벤처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들과 함께할 지자체로는 남해군, 거창군, 금산군을 선정했다.

특히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남해군에서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남해군의 관광산업 잠재력을 방증했다.

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전액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한다.

남해군에서 추진될 프로젝트는 갯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사천공항 연계 촌캉스 여행 캠프/낚시 축제 워크ेशन 시티 구축 글로벌 노마드 인프라 구축 아트 나이트 워크 독일마을 빅게임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운영 등이다.

2월 한 달 간 남해 곳곳에서 이들 관광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향후 확대 시행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날 워크숍에서는 관광벤처 8개 업체 대표와 한국관광공사 및 남해군, 그리고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.

한국관광공사는 'better ㄹ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실증 사업'을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류해석 남해군 부군수는 "남해의 관광산업 잠재력과 벤처기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나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탄생했으면 한다"며 "다양한 여행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해저터널 시대와 1000만 관광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

정기환 기자 jeong9200@gmail.com